

즐거워서 아픈 여행길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10월 마지막 주말, 고속도로엔 나들이객으로 북적였다. 심지어는 휴게소 화장실마저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대개 관광버스로 움직이는 단체여행객들,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많았다. 모두들 단풍철 막바지 야유회를 떠나느라 활기 넘쳤다.

잠전 나는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관광버스에 오른 터였다. 우리처럼 이리 많은 사람들이 마을단위의 여행을 하는 건가. 그도 그럴 것이 관광버스 전면 유리창에는 마을지명이 붙어 있어 오늘 만큼은 국가적인 행사 같다는 생각도 들 지경이다.

우리 마을에서는 네번의 행사가 있다. 봄·가을 야유회, 여름 삼계탕 먹는 날, 겨울에는 척사대회를 한다. 이번 가을 야유회에는 예전보다 참여가 적었다. 관광버스 두대에 가득찰 정도로 있었는데 이번엔 한대를 다 채우지 못했다. 우리 애들이 유치원 생일 무렵 이 여행에 참여한 게 아득하기만 하다.

그날 빠지지 않는 게 있다. 배웅객이다. 특히 선거철일 경우 출마자들이 일찍 나와 인사도 하고 음료수 상자도 실어주곤 했다. 올핸 그들이 없어 다행이다. 다만 조합장, 읍장, 마을이장협의회장이 마을 야유회를 배웅했다. 인사말도 그저 잘 다녀오라고 간단한 덕담에 그쳤다. 야유회 경비는 송전탑 및 상수원 보호권역 지원금에서 나온다. 야유회 경비를 허용한 이유가 경제 후방효과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버스에 오른 사람은 30여명, 코로나 이전보다 열명쯤은 줄어든 것 같다. 참여자들은 주로 80대 노인, 최고령은 95세 할머니 그리고 세살짜리 아이 한명은 부모를 따라와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일부는 처음 보는 이도 있다. 아마도 근래 이곳으로 주거를 옮긴 이들이겠으나 모두 노인이다. 마을 가구수가 50여호인 것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사실 마을에는 주소만 있는 전입자들이 열가구가 넘는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나 그들은 '유령'이나 마찬가지로.

버스에 올라서자 부녀회, 청년회원들은 모두에게 김밥, 음료, 과일 등을 나눠주고 인사를 건넸다. 부녀회장과 청년회장은 60대 초반, 노인회장은 80대 중반. 그들은 마을 일을 도맡아 한다. 도시 직장인이라

면 은퇴할 나이지만 여기서는 그저 어린 청년일 뿐이다.

여행길은 서천 갈대밭, 금강하구, 새만금 방조제, 선유도로 이어졌다.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관광춤을 쳤다. 어떤 노래가 나올 때는 버스가 떠나가도록 합창을 하기도 했다. 노인들은 노래나 장고 등을 배우고 여러 취미생활도 한다. 그런 일상 중 하루 함께 하는 하룻자리 여행은 내게도 다시 못 볼 날이다. 그래서 햇빛도 바람도 바다와 파도도 싱그럽고 투명했다.

마을 이장은 "며칠전 노인회장과 야유회를 상의할 때 야유회를 잘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노인회장께서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라는 말을 듣고 그런 말이 들었다"고 했다. 야유회 때마다 세상을 떠나 못 보는 이웃들이 생겨서 한 말이다. 빈자리를 나도 공감한다. 60대가 청년인 동네, 어린 아이 보기가 무척 귀한 세상에서는 그 맛을 다들 안다. 그래서 함께 흥을 나누려고 더 노래하고 춤 춘다.

우리들의 풍경, 아이를 낳지 않는 시절 노인으로 살기란 더 적적할 따름이다. 오늘 만큼은 그 적적함을 잊고자하는 이들과 함께 해서 즐겁고도 아팠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부산엑스포, 28일 남았다



기지수첩
최빛나
(유통&라이프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심혈을 기울인 2030년 엑스포 유치국가를 정하는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이달 말 열린다. 본부에서는 182개 회원국 투표로 정해진다.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민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막바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치전 당시에는 승산이 없을 줄 알았지만 돌연 중동 지역 무력 충돌 사태로 승산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엑스포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원동력을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국격까지 높인 행사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부산엑스포 유치다. 무려 대통령실에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획관과 산하에 미래정책비서관실을 두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국가의 위상을 올린 엑스포와 현재의 엑스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부산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뒤따라오는 다양한 과제들이 많다.

국가 경제력도 생각해 봐야 한다. 올해 6월까지 국가 채무액이 600조원에 다다른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부채액을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엑스포를 오래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엑스포같은 국제적인 행사가 오히려 '남비'의 행사로 전락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12년 여수엑스포, 2018년 동계올림픽이 이를 방증한다. 여수 올림

픽은 개최 직후 적자만 100억원 대를 넘긴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은 갈아졌다. 유치가 성공해 한국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건 혁신을 위한 엄청난 추진력과 에너지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처, 기업 등 전방위적으로 엑스포 성공에 몰입해야 한다.

과감함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국가, 정부기관이 경제적인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대전엑스포를 준비할 당시 보여줬던 적극적인 정부기관의 모습과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과감함 말이다. 37년 동안 3번이나 엑스포를 개최한 대한민국의 국격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기회다. 자, 28일 남았다. /vtna@

오늘의 운세 11월 1일 (음 9월 1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 48년생 원숭이띠, 뱀띠의 도움으로 거래가 무사히 성립. 60년생 오늘 집안청소로 분위기를 바꾸자. 72년생 좋은 것을 포기하고 마음이 아프다. 84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37년생 결혼은 돌이 했지만, 인생은 어차피 혼자 가는 여행. 49년생 겨울은 결코 혼자서는 못 버티는 날. 61년생 가족의 도움으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73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간다. 85년생 술자리에서 실수하게 된다.



38년생 독단적인 일처리로 원망을 듣는다. 50년생 아쉬워도 포기하니 마음은 편하다. 62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을 처리해야. 74년생 손톱에 뚫던 배 가듯이 손조로운 하루가 되겠다. 86년생 좋은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긴다.



39년생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성공이 눈앞. 51년생 집으로 가는 길이 편안하지 않다. 63년생 산돌바람이 부니 일이 잘 풀린다. 75년생 재실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는 것을. 87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40년생 걱정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다. 52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는 신아라 한다. 64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76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푸름. 88년생 주변 없어 기죽지 말고 일을 찾자.



41년생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53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흠찬 마음. 65년생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 77년생 한참 젊어도 방랑 비호기 계통 질병을 살펴보자. 89년생 이기가까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노력.



42년생 신장 질환의 위험성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받아 보자. 54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이 우선. 66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걸어 간다. 78년생 중요한 연락이 온다. 90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온다.



43년생 어항 속의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한 하루. 55년생 위기를 대비하여 비상금을 모으자. 67년생 기다려도 기회는 오지 않으니 스스로 개척. 79년생 친구와 대립이 생기기 조심. 91년생 가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니 귀하게 여겨라.



44년생 다시 일어설 능력이 있다. 56년생 아랫사람과 의견충돌을 주의. 68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80년생 매사가 귀찮고 모든 것이 심드렁한 날. 92년생 가진 것이 없어도 평소 지닌 실력이 있으니 재기된다.



45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다시 할 일을 찾자. 57년생 배우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 69년생 욕심이 지나치니 견제를 받는다. 81년생 겉모양만 화려한 것을 동경. 93년생 변화에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46년생 꿈이 있다면 놓지 않는다. 58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70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다. 82년생 학습은 단기간의 결과물이 아니라 평소에도 노력으로 준비를. 94년생 인연을 만나니 세상이 꽃동산이다.



47년생 해맞이 날이 원행을 금하. 59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때론 고맙기도. 71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83년생 결심이 사흘을 지나면 굳어지게 되니 기다려보라. 95년생 평범한 사람이라는 장삼이사를 받아들여라.



김상회의四季 스트레스 잘 받는 것도 팔자에

경제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각박해진 정서와 심화된 경쟁 빈부의 격차 등 스트레스에 여러 요인이 산재해 있다. 게다가 일상인 소셜미디어에는 여기저기 여행 간 곳의 풍경 모습과 펜션한 음식들 사진 등 각종 얼마나 행복한 순간들을 향유하고 있는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난리가 난 모습들이다. 즐겁게 떠난 여행에서도 돌아오면 다시 일상이다. 충분한 휴식과 레저로 재충전을 하여 다시금 에너지 있는 일상을 살아가려는데 왜 부정적인 생각이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위다.

발전을 이루어 삶의 질이 높아진 것만큼 그에 비례하여 스트레스 지수 역시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극심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인데 추천되고 있는 방법은 바로 명상이다. 종교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명상이 주는 이익은 감탄할 만하다. 작게는 심신의 안정이요, 크게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론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종교에서나 어느 수행 단계에서나 명상 또는 선(禪)은 중요한 기본적 요소이다. 사주명리학에서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구조가 있다. 팔자의 구성에 목화토금수 중 한 가지 오행五行이 많은 경우 또는 없는 경우 신살 중에 귀문살과 도화살이 있는 경우 비겁(나의 일간과 같은 속성의 오행)이 왕한 경우가 해당한다. 더하여 대운과 세운이 길신이나 희신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일주에 해당하는 십이운성이 쇠(衰)나 묘(墓)라면 그 강도는 더욱 강해진다고 해석한다. 오행이 치우치다 보니 조울증등 감정의 기복이 심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지는 말자. 원인을 알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과 방편이 있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기에.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트파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2	6			3	
				8	9	
			9		4	
8				4	2	
	6	4				
6				8		
	1		9			
	2			6	5	7

4	8	5			3		9	
		3						
7			1			5	6	
							7	
		2			5			
3								
2	9			3			1	
							7	
1		7			2	6		5

할인도서

8	2	9	6	1	6	2	7	
2	9	6	7	1	6	8	1	9
6	7	1	9	8	2	7	8	9
9	9	6	2	1	8	7	9	2
9	1	8	6	2	7	9	1	8
1	2	7	6	9	9	1	6	8
7	8	9	2	6	1	8	9	1
1	6	2	8	9	6	9	7	1
9	8	1	1	7	9	2	8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0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0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